



1,500년 전 集安 고분 벽화전

아! 고구려...

1993-07

▶ 주최: 朝鮮日報社

국립현대미술관

▶ 협찬: 鮮京그룹

1993.11.18-12.26 · 국립현대미술관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1993년 11월 10일 인쇄
1993년 11월 15일 발행

발행인: 방상훈

발행: 조선일보사

기획: 인보길, 서희건

전시기획: 김명규, 서건, 국립현대미술관

취재: 김태익

사진: 이오봉, 김주호

편집: 조의환

편집디자인: 주식회사 안그라픽스

전시디자인: 인터디자인연구소

인쇄: 조광출판인쇄주식회사

朝鮮日報社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1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아! 고구려...

1,500년 전 集安 고분 벽화전

고구려의 꿈과 기상을 되새기며

참가 이래 민족사의 정립에 앞장서 온 朝鮮日報社가 한국 언론으로서 최초로 중국 集安의 고구려 고분 벽화들을 촬영, 또 하나의 성과 '아! 고구려...1천5백 년 전 集安 고분 벽화' 展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금은 남의 땅이 된 중국내 고구려 고분 속의 벽화들을 우리 손, 우리 시각으로 처음 찍어 대중앞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들 사이에 차츰 잊혀져 가는 대륙 왕국 고구려의 꿈과 기상을 다시금 소생시킬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민족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구려는 우리 민족 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경영한 왕조였습니다. 또 한국사에서 중국의 여러 종족과 어깨를 겨뤘던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역사가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마다 고구려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중년 이상 세대들은 어렸을 때 주몽이며 유화부인, 해모수, 비류, 온조 등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고구려의 개국 설화를 들으며 대륙에의 꿈을 키웠던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 남북이 분단되고 냉전이 심화하면서 민족사에서 고구려가 차지하는 비중이 차츰

덜어져 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고구려의 강역이었던 만주와 북한 땅을 밟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과 남북한 양측에서는 한 민족, 한 역사의 후손들이면서도 고구려에 대한 역사 인식의 단절 현상마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朝鮮日報社가 '아! 고구려...' 展을 통해 고구려사의 원상 회복을 외치고 나선 것은 이처럼 남북한에서 빚어진 굴절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자는 반성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누구나 한국학 연구의 출발점이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원류를 밝히는 모든 연구들이 고구려 벽화에서 제1장을 시작하면서도 일제가 찍은 빛바랜 사진이나 모사도, 중국·일본인들이 찍은 사진을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이런 까닭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 고구려...' 展을 계기로 우리는 보다 담당하고 자신 있게 고구려 벽화를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朝鮮日報社는 우리의 취재진이 촬영한 고구려 벽화 사진들을 기꺼이 우리 문화를 아끼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구려 벽화는 한국학 연구의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 자체로서도 탁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안의 고분 벽화마다 그려진 각종 인물·동물 형상, 문양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긴 고색 창연한 색채와 놀라울 정도의 세련된 구성으로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도 벽화를 가진 민족은 몇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아! 고구려...' 展을 다른 데도 아닌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는 데는 바로 고대 벽화에 담긴 조상들의 예술적 우수성을 오늘의 회화 부흥에 접목시켜 보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잠시 잊혔던 대륙에의 꿈을 지필 수 있는 소중한 불씨입니다. '아! 고구려...' 展의 개최를 흔쾌히 맞아 주고 하신 林英芳 국립현대미술관장과 미술관 관계자 여러분, 전시회 개최를 협찬해 주신 선경그룹 崔鍾賢회장, 집안에서의 고분 촬영을 위해 애써 주신 朴文一 중국 조선사연구회장(연변대 총장)과 李閔基 해외 한민족연구소장, 현장 취재시에 도움을 주신 롯데그룹 辛格浩회장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3년 11월 17일

朝鮮日報社 사장 方 相 勳

옛 선조들의 멋과 삶을 더듬어 가며

예 우리 나라 고구려 사람들이 남긴 발자취가 1천5백 년이 지난 오늘날 역사적인 진리로 후손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이롭고 찬란한 역사적 문화 흔적이 담긴 영상 자료를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전시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특히 이 전시는 옛 우리의 문화를 탐방한 오늘의 역사성이 있는 다큐멘터리 전시라는 점에서 미술관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합니다.

고분의 벽화들은 옛 우리 조상의 정신 세계가 어떠하였으며 또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주관, 그리고 자연관이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고분 벽화들이 한결같이 웅혼한 기백과 정기로 가득찬 고구려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원초적인 모습일진대, 한 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의 염원을 가슴에 안고 그 웅장했던 한민족의 기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벽화들은 우리 조상들이 삶을 즐길 줄 알았고, 아름다움과 멋을 향수할 줄 알았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된 영상 자료가 보여주듯이 고귀하고 신기한 그 회화성은 회화 미술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것인가를 뚜렷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화 미술이 삶의 안팎을 알려주며 삶의 의의를 표증하고 기록하는 지극히 슬기로운 인간적인 표현임을 우리의 조상들이 1천5백 년 전의 고분 벽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 입니다.

고분 내부의 건축적인 구조는 과학적이고 기능적이며 간결합니다. 또 이를 장식한 벽화의 구성과 내용은 고분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시대 문화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이 보여주듯이 아직도 생생한 색깔이 우리의 눈을 놀라게 합니다. 무슨 안료와 어떠한 기술이 이토록 화려하고 찬란한 그림을 오늘날까지 존속하도록 하였을까?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던져진 과제이고 또한 미술관이 의식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벽화들은 우리에게도 엄연한 신화 계보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그 세계가 속세의 삶과 연결돼 있음으로써 이상과 현실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면에서는 여러 사회상을 보여주는 장면과 사람들이 등장하여 우리 고대 사회에 대한 탐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고분 벽화 사진전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 당시 사회의 여러 중요한 면면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학구적인 계기와 탐구의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옛 고구려의 숨겨진 모습이 그나마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가! 단편적인 고구려의 옛 모습이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크나큰 각성을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의 조상이 어떠한가를 감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이번에 조선일보사가 마련해 준 것에 대해 새삼 감사하는 바입니다.

1993년 11월 17일

국립현대미술관장 林 英 芳

대륙왕국, 고구려의 숨결을 찾아서

朝鮮日報 특별취재반 (대표집필 金泰翼)



대륙에서 웅비하던 한민족의 역사와 기상은 1천 5백 년이 지난 지금도 고분의 벽화 속에 살아 있었다. 중국의 집안시 오희분 4호묘의 굳게 잠긴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분 안은 칠촉처럼 캄캄했다. 바깥 기온은 섭씨 27~28도를 오르내리는 더운 날씨였지만, 등이 오싹하도록 서늘했다. 손으로 통로를 더듬어 현실 입구로 도착했다고 느끼는 순간, 안내한 집안 박물관 관계자가 바깥으로부터 줄을 연결해 들어온 백열전등을 켰다. 충격과 감동의 현장이었다.

현실의 네벽과 입구, 모서리에 받침돌을 놓아 계단식으로 좁혀 올라간 천장... 모든 벽면이 온통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다. 서로 뒤엉켜 꿈틀거리는 39마리의 용, 해와 달을 머리에 이고 있는 일월신, 평천관을 쓰고 용을 타고 날아가는 신선, 동양 고대 신화의 불의 신과 농사의 신... 고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이었다.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했고, 중국과 자웅을 겨루며 동북아의 지배권을 다투었던 국내성(集安)시대 고구려의 화려한 자화상이었다.

"1천년 넘게 짝사랑해 온 애인을 만나는 기분입니다." 집안의 벽화 고분 공개를 앞두고 서울에서

간 한 미술 사학자는 자신의 설레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지금은 남의 땅, 만주의 벌판에 버려진 고구려의 숨결을 찾는 데는 광복 후에도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러야 했다.

집안의 고구려 벽화 촬영은 그러나 뜻밖에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연변대학 조선사 연구회와 한국 해외한민족연구소, 조선일보사는 8월 11, 12일 집안에서 남북합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학자들이 참가하는 '고구려 문화 국제 학술회의'를 공동 주최했다. 집안 시가 생긴 이래 고구려 전공 학자들이 이처럼 많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고, 최근 적극적으로 개방을 지향하는 집안 시의 입장에서 이는 집안이란 도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 때문에 집안 시와 박물관은 참가 학자들에게 이곳이 자랑하는 귀중 문화재인 벽화 고분들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이다. 조선일보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의 취재를 위해 金泰翼 문화 1부 기자, 李五峰 출판사진부장, 金柱昊 사진부 기자 등으로 특별취재반을 구성, 파견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오늘날 전해지는 5~7

세기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적 업적 중 가장 뛰어난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한국 문화의 뿌리를 캐려는 작업치고 고구려 고분 벽화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없다. 미술사, 복식사, 음악사, 무용사, 생활사, 민속사, 장식·문양사... 어느 것이든 기원과 유래를 따지려면 고구려 벽화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중요한 고구려 벽화건만, 지금까지의 연구서든 백과사전이든 우리 손으로 찍은 사진 한장 없이 일본인 중국인들이 찍은 사진이나 모사도에만 의존해 온 현실은 어떻게 설명 해야 할까. 조선일보가 한국 언론으로서 최초로 집안의 고구려 고분 벽화들 촬영에 성공하고 이를 신문지상과 책자,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같은 학술사적, 문화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촬영한 벽화 고분은 집안의 무용총, 각저총, 사신총, 삼실총, 장천1호분, 오희분4-5호묘 등 7기이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국내성이 있었던 집안에는 현재 1만 2천여 기의 고구려 고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벽화가 확인된 곳은 20기이다. 이번에 촬영한 고분들은 집안의 벽화 고분 중에서도 가장 내용도 풍부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



오른쪽 위/ 집안의 한도산성에서 내려다 본 고분군. 집안시 일대에는 이같은 고분 밀집지역만도 70여 곳이 넘는다.

오른쪽 가운데/ 장천 1호분 앞에서 집안박물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고구려 문화 국제 학술회의' 참가학자들.

오른쪽 아래/ 집안박물관의 관계자가 굳게 잠겨 있는 고분 철문을 용접기를 이용해 다시 열고 있다.



사진 왼쪽 위/ 산에서 내려다 본 집안 시내 전경.

왼쪽 가운데/ '동방의 피라미트'으로 불리는 장군총의 위용.

왼쪽 아래/ 집안시대 고구려의 도성이었던 국내성.

사진 오른쪽/ 고구려 대륙 기상의 상징인 광개토대왕비.

로 평가되는 곳들이다.

고구려의 벽화 고분은 현재 북한의 평양 지역과 중국의 집안 지역 등 두곳에 80여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 있는 벽화는 1985년 일본에서 열린 고구려 문화전을 통해 국내 일부 책자들에게 소개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 측은 집안 벽화의 경우 모사도만을 전시, 그 다양한 실상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었다.

한편 중국의 문물출판사에서 1989년 발간된 '중국 미술 전집'의 회화편 12 '묘실벽화'에는 집안의 고구려 벽화 사진이 17장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중국인의 시각에서 선택된 제한된 작품들만 수록함으로써 고구려 벽화의 진면목을 알리는 데는 크게 미흡하다. 우리 나라 고고미술사학계의 원로 김원룡 박사가 저서 <한국 벽화 고분>에서 "고구려 벽화는 현재로서는 실물을 보지 못하는 지상 연구(紙上 研究)이기 때문에 많은 원초적인 착각과 과오를 범하고 있을 것이 뻔한 일"이라고 밝힌 것은 이같은 실정을 염두에 둔, 정곡을 찌른 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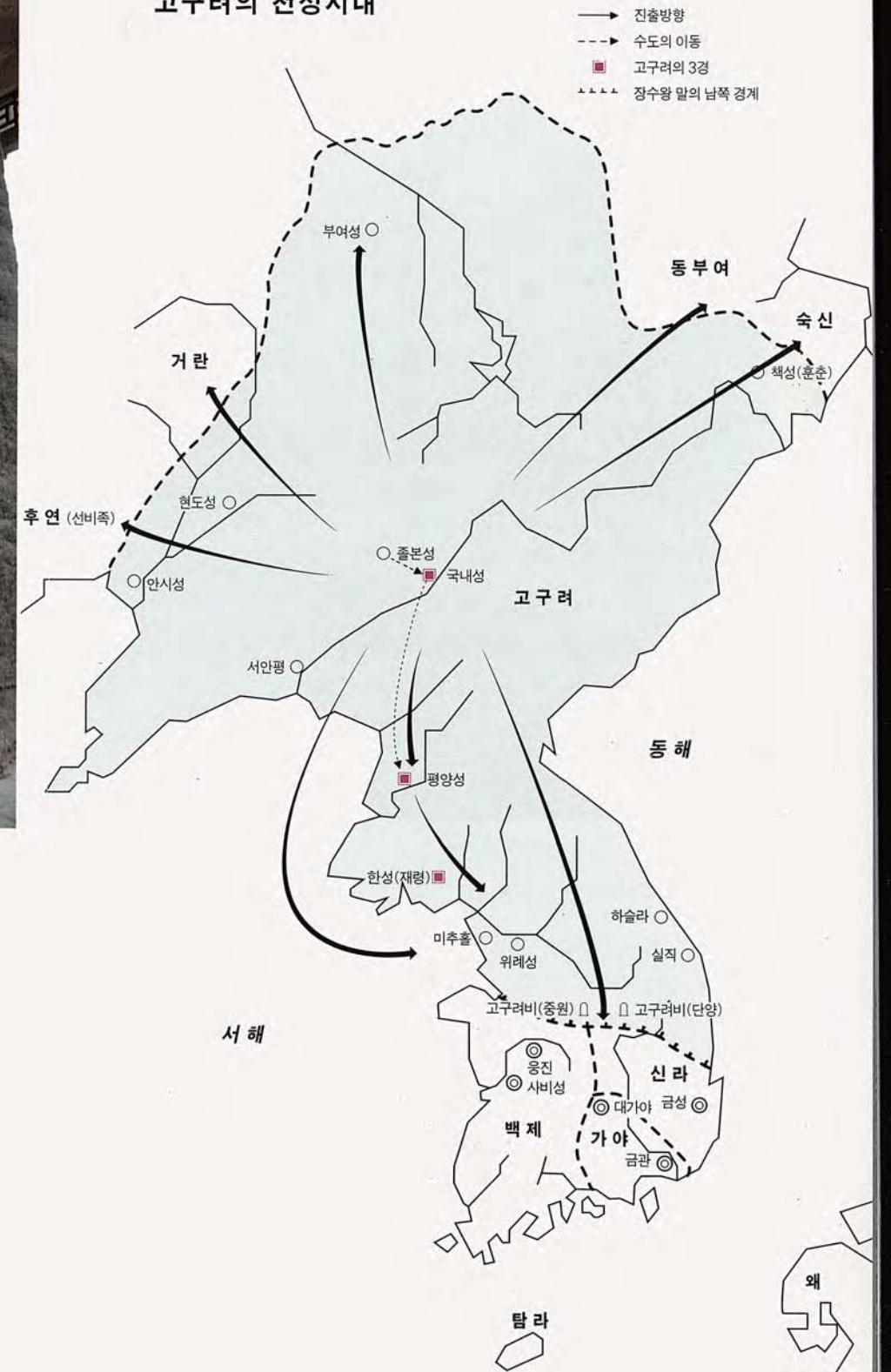
조선일보 취재진이 촬영한 고구려 벽화 사진



은 모두 1천 컷이다. 물론 현장에서의 촬영 조건은 국내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빴다. 바람직한 조건이라면 충분한 시간과 조명 시설이 전제돼야겠으나 그렇지 못했다. 한치 앞이 안 내다보이는 캄캄한 묘실 안에서 조그만 플래시 두 대에 의지해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 댔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찍은 사진 중 사용 가능한 것을 2백여 장이나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차라리 기적에 속한다고 해야 할 지도 모른다.

한편 집안의 고구려 벽화들이 문화재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확인한 대부분의 고분벽화들은 외부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심한 결로(結露, 벽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 관람객의 관람이 유일하게 허용되고 있는 오후 5호묘의 경우엔 이 현상이 특히 심해, 만일 관광객의 발길이 다른 고분에 까지 파급된다면 벽화의 훼손이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비교적 일찍 발굴된 무용총과 각저총, 삼실총, 사신총의 훼손 정도가 다른 고분에 비해 심하다는 사실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고구려의 전성시대





물론 한때는 고분들이 집없는 거지들의 숙소로까지 이용됐다는 것이 현지인의 증언이고 보면, 이나마 고분 벽화 보호에 노력해 온 중국의 문화재 당국이나 전공 학자들에 고마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집안 벽화를 관람하려는 관광객의 발길은 앞으로도 계속 붙어날 것이다. 고분 벽화의 보존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우리 나름으로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 민족 최대의 문화 유산은 외국 영토 내에서 어떤 운명을 겪게 될 지 모른다.

이번 전시회에 공개되는 1백 40여점의 사진들은 지금까지는 낱장의 사진이나 모사도를 통해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던 고구려 벽화들이 하나의 고분 내에서 각각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상호 관련되는가를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다. 또 외국인의 눈에는 미처 발견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처음 알려지는 장면들도 있다. 조선일보는 이와 같은 성과가 고구려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국민의 대륙에 대한 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학계와 일반에 자료로 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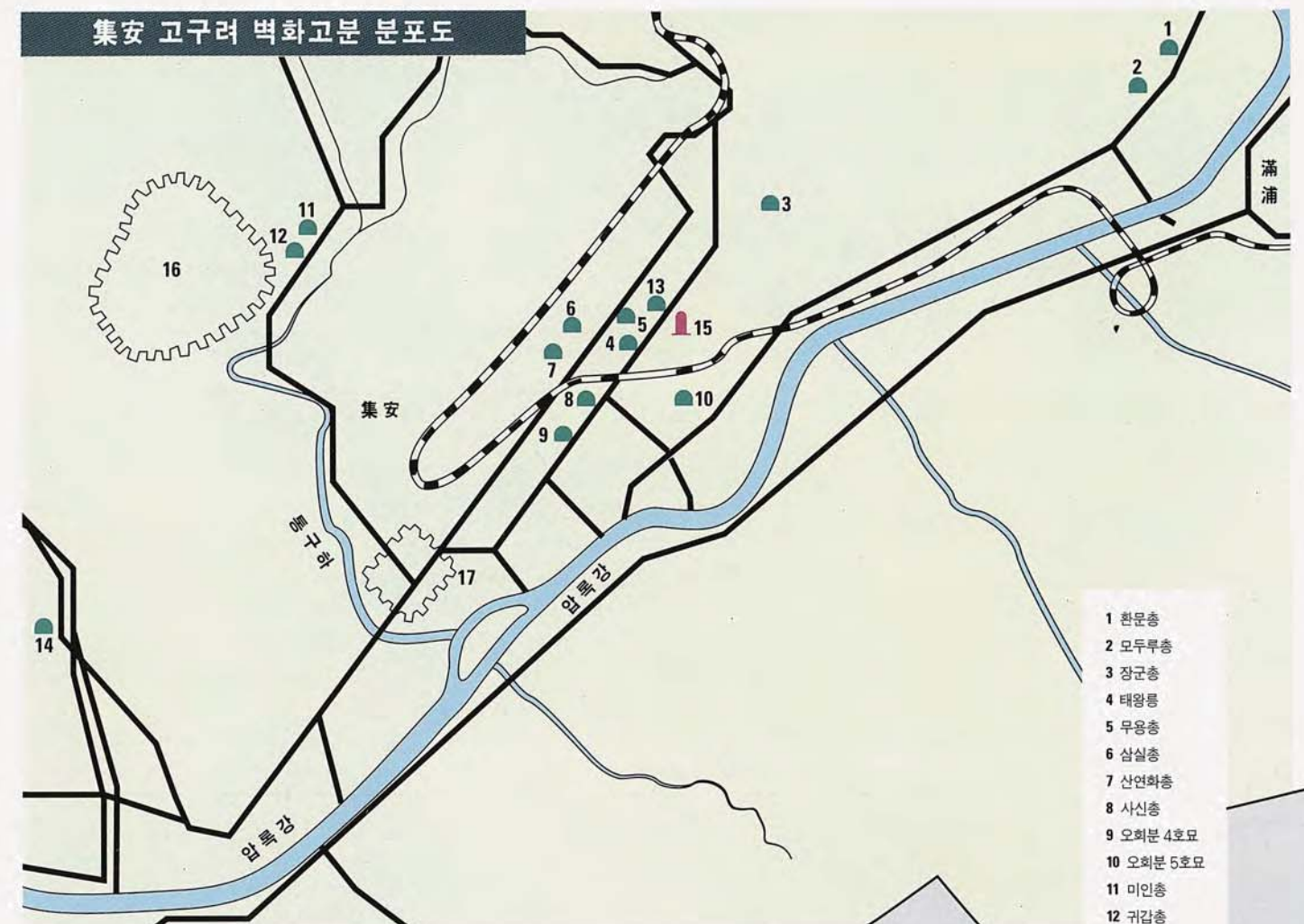
사진 위/ 집안시 근처의 적석(積石) 고분군. 1만 2천여 기의 고분들이 산재한 집안은 세계적인 고분 연구의 보고이다.

가운데/ 집안의 도심에서 상품 선전에 나선 '고구려 맥주' 회사 차량 행렬. 집안에선 '고구려'란 상표를 단 간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아래/ 집안역. 하루 1회 압록강 건너 북한의 만포시를 오가는 기차가 운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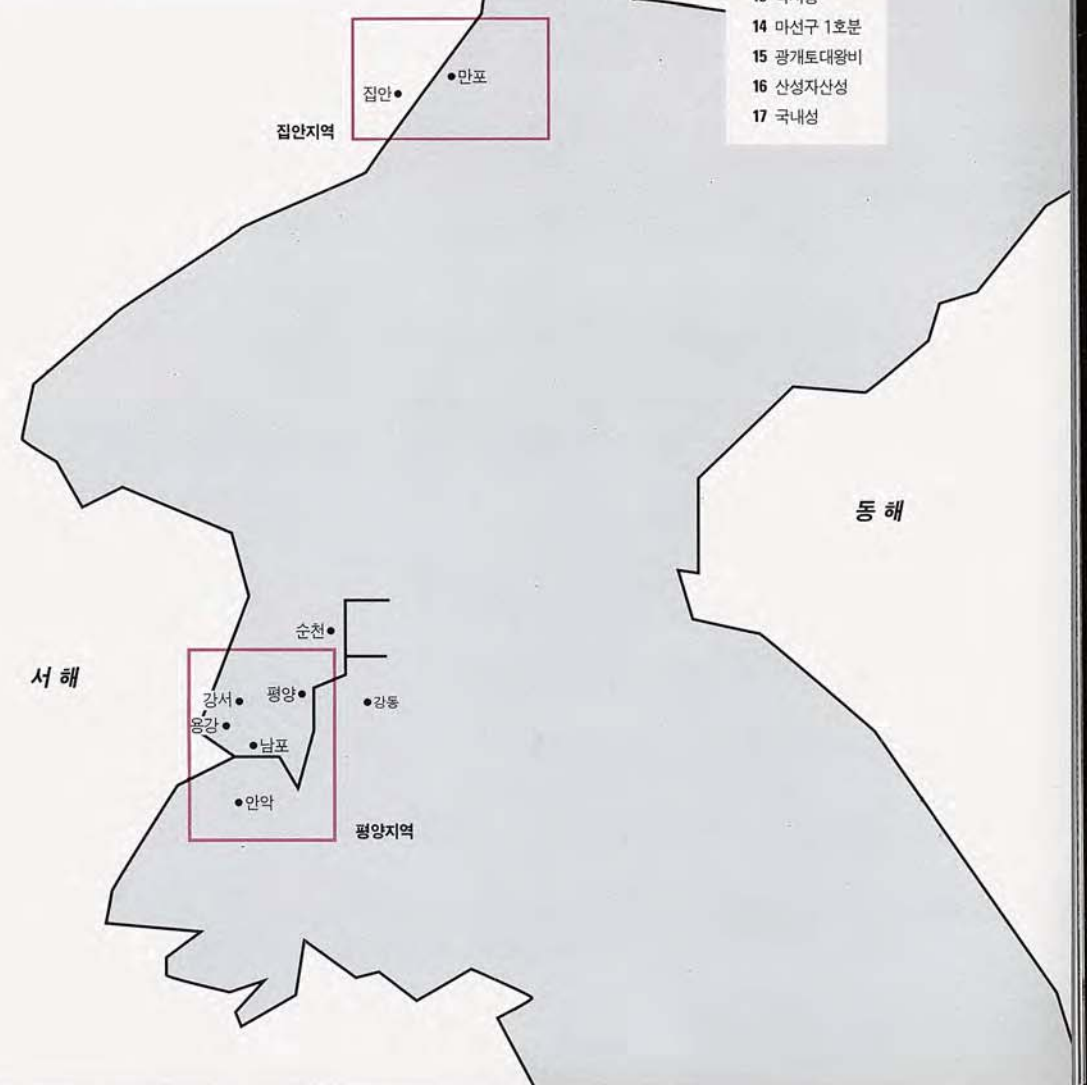
集安 고구려 벽화고분 분포도



- 1 환문총
- 2 모두루총
- 3 장군총
- 4 태왕릉
- 5 무용총
- 6 삼실총
- 7 산연화총
- 8 사신총
- 9 오회분 4호묘
- 10 오회분 5호묘
- 11 미인총
- 12 귀감총
- 13 각저총
- 14 마선구 1호분
- 15 광개토대왕비
- 16 산성자산성
- 17 국내성

평양지역 벽화고분

남경리1호분	수림총
내리1호분	성총
개마총	감신총
호남리사신총	진파리1호분
고산리9호분	진파리4호분
고산리1호분	복사리벽화고분
평양역전벽화고분	안악1호분
천왕지신총	안악2호분
요동성총	안악3호분
강서대묘	대보산리벽화고분
강서중묘	마영리벽화고분
악수리벽화고분	팔청리벽화고분
연화총	덕흥리벽화고분
대성리1호분	덕화리1호분
대성리2호분	덕화리2호분
대안리1호분	동명왕릉
쌍영총	수산리벽화고분
웅강대묘	



오회분 4호묘

사진 오른쪽/ 독특한 고분 구조

현실의 네 모서리에 각각 삼각형의 돌을 얹어 천장 좁히기를 두번 하고 그 위에 판석으로 천장을 덮는, 이른바 말각조정(抹角藻井)식은 고구려 고분의 특징 중 하나다.

사진 왼쪽 위/ 수레바퀴의 신

천장 받침돌에 그려진 제륜(製輪)신, 망치로 수레바퀴를 두드리고 있다.

사진 왼쪽 아래/ 농사의 신

천장 받침돌 벽화에 등장하는 농사의 신. 고대 농경사회에서의 소는 여유와 풍요의 상징이었으며 곧잘 의인화되기도 했다.



지아
으로 돌러 싸인 분지의 중앙에 위치한 대형 벽화 고분이다. 근처에 비슷한 크기의 다섯 개 고분이 밀집해 있어 오괴분(五塊墳)이라고도 불린다. 바로 옆에 오회분 5호묘가 붙어있다. 크기는 높이 8미터, 무덤 둘레 길이 180미터.

오회분 4호묘와 5호묘는 1962년 본격적으로 발굴-정리된 관계로 국내 학계에는 비교적 덜 알려졌다.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개됐다 해도 몇 장의 모사도나 흑백 사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조선일보 취재진의 현지 답사 결과 두 고분의 벽화는 내용-기법 상으로 고구려 벽화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것들로 밝혀졌다. 특히 4호묘는 원벽에 가까운 구성이 돋보이며, 일반인 관람이 허용된 5호묘에 비해 색상 등의 보존 상태가 뛰어나다.

오회분 4호묘의 벽화는 7세기의 전형적인 벽화 양식에 따라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四神)을 네 벽에 그린 것이다. 천장에는 황제를 상징하며, 웅중에서도 으뜸이라는 황룡이 금방이라도 살아 숨쉴 듯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러나 벽화를 그린 기법, 1천 5백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안료의 사용술 등은 비슷한 내용의 벽화로 그 동안 널리 알려져 온 사신총의 벽화를 훨씬 능가한다. 회칠을 한 위에 그린 무용총의 5세기 벽화보다 화강암 위에 직접 그린 7세기의 오회분 벽화가 어쩌서 더 보존 상태가 양호한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다.

오회분 4호묘 벽화의 특징은 풍부한 설화성이다. 천장을 받치는 받침돌에 일월신과 함께 농사의 신, 불의 신, 야철(冶鐵)의 신, 제륜(製輪) 신 등 인류 문명 발달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신들의 형상을 묘사한 것이다. 그것은 한편의 완벽한 회화 작품을 보여주는 동시에 동양에서도 그리스 신화와 같은 본격적인 신화의 구성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오회분 4호묘의 벽화들은 7세기의 고구려 문화가 완숙한 국제성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벽화의 내용과 기법 중에는 중국 육조 시대의 영향이 눈에 띄며 불교-도가적 요소가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서로 뒤엉켜 꿈틀대는 39마리의 용, 네 벽면을 뒤덮은 나뭇잎 문양의 화려한 색상은 국제 무대에서도 손색이 없었던 고구려 문화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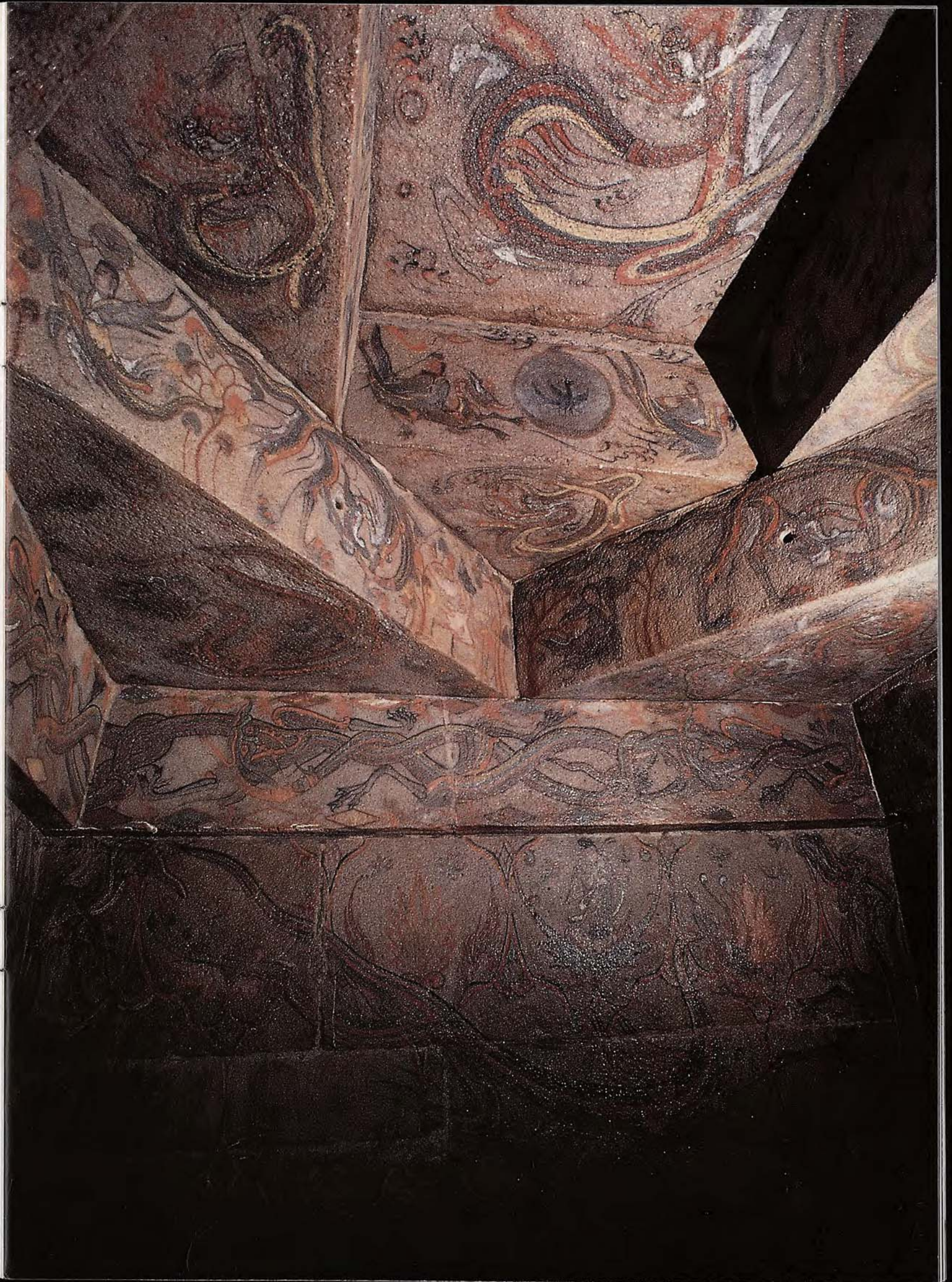




사진 위/ 해의 신, 달의 신
 이중의 천장 충급 받침돌에 그려진 그림이다. 오른쪽에 남성 모습의 해의 신이 들고 있는 해 속에는 고대 동양신화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세발 달린 까마귀(三足鳥)가 들어 있다. 또 맞은 편 여성 모습의 달의 신이 들고 있는 달 속에는 달의 상징인 두꺼비가 들어 있다.

오회분 5호묘



집안에 있는 20기의 벽화 고분 중 현재 유일하게 일반인 관람이 허용된 곳이다. 벽화의 내용이나 기법은 오회분 4호묘와 거의 비슷해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 사신(四神)과 각종 문양들이 힘찬 필치로 짜임새 있게 그려졌다. 해의 신, 달의 신이나 제륜신 야철(冶鐵)신, 농사의 신 등 인류 문명 발달에 기여한 신들이 그려진 것도 마찬가지이다.

천장은 삼각형 받침들로 네 벽면의 모서리를 차츰 좁혀나간 말각조정식이며, 현실 바닥에는 피장자와 그의 부인, 첩의 관을 놓았던 대(臺)가 놓여있다. 일반 관람이 허용된 까닭에 벽면에 결로 현상이 비교적 심하다. 오회분 4호묘와 5호묘는 1960년대 중국 정부에 의해 우리나라의 문화재 지정과 같은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됐다.



사진 왼쪽/ 천장 받침들의 장관

현실의 벽면에서부터 받침들을 거쳐 천장에 이르는 공간의 벽화. 4호묘와 마찬가지로 황룡과 주악비천상, 수레바퀴의 신 등의 모습이 보인다. 무용총 각저총 삼실총 등 5세기 경의 고분 벽화들이 그 시대의 풍속을 잘 전한다면 오회분과 같은 7세기 경의 고분벽화는 사신 그림을 통해 고구려인들의 신앙과 정신세계를 대변한다.

사진 오른쪽 위/ 고분 현실의 내부

전실에서 입구를 통해 현실 쪽을 들여다본 사진. 천장은 말각조정식이며, 바닥에는 피장자와 그의 부인, 첩의 관대(棺臺)가 세 개 놓여있다.

사진 오른쪽 아래/ 날개를 추켜 든 주작

현실 안쪽에서 전실 방향으로 나 있는 입구의 오른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주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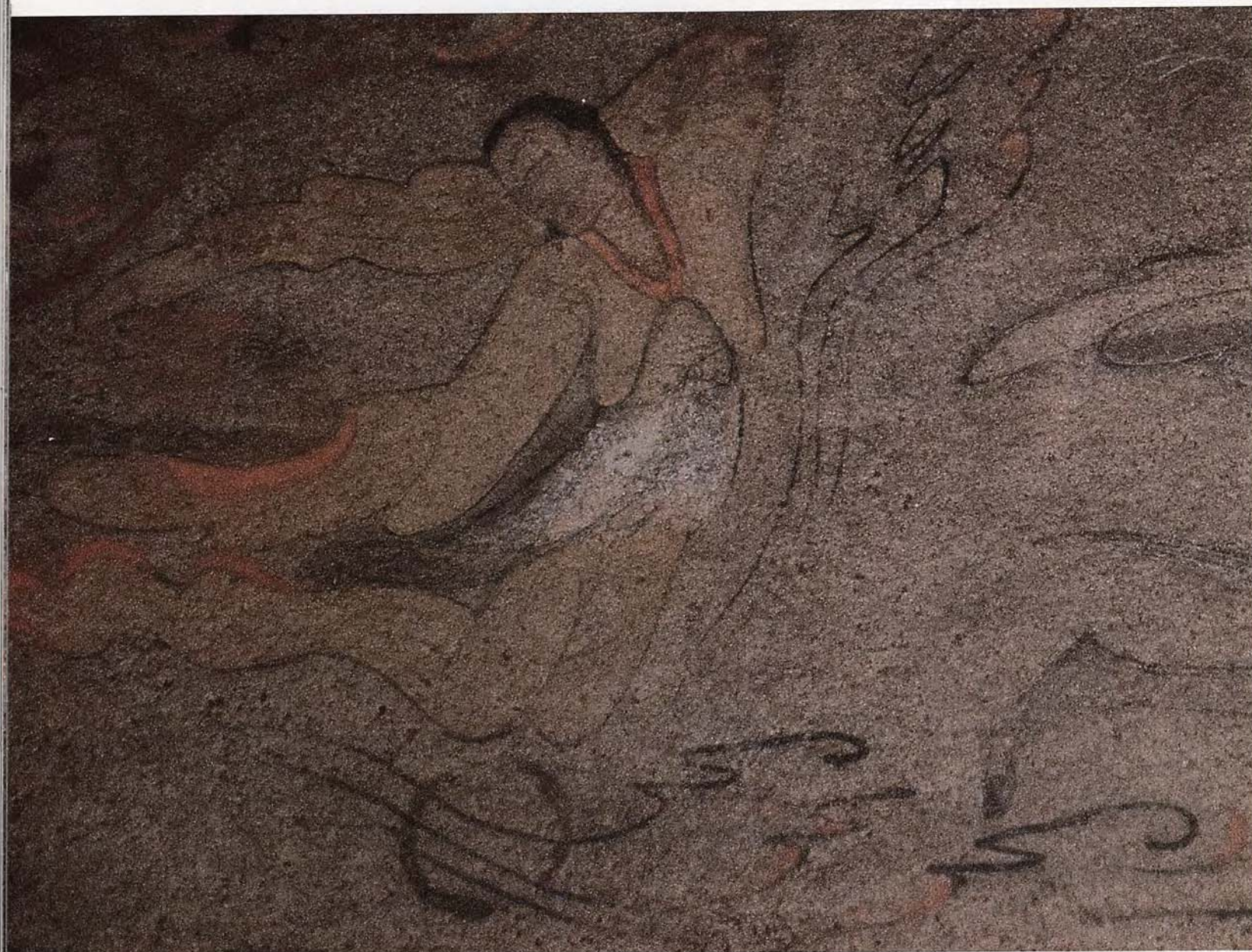


사진 위/ 소 머리를 한 농사의 신

흰 뺨, 푸른 눈을 한 소 머리에 사람의 형체를 가진 농사의 신이 오른 손에 벼 이삭을 들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훔날리는 옷자락과 농사의 신의 몸짓에서 강렬한 동세가 느껴진다.

사진 아래/ 얹혀 있는 용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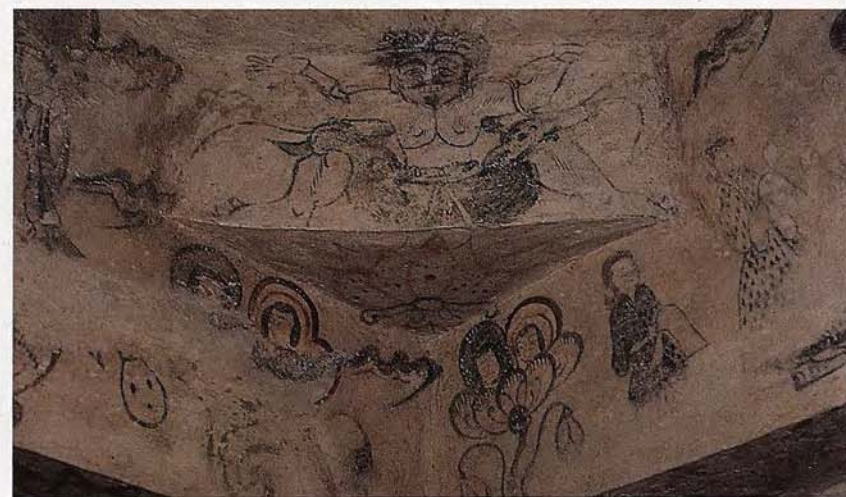
4호묘와 마찬가지로 벽면과 천장 받침돌을 경계짓는 돌들에 사방으로 그려져 있다. 이보다 이른 시기의 벽화에서는 이 부분이 인동 당초문으로 처리됐다.

장천 1호분

사진 오른쪽/ 고구려 사람들과 원숭이
전실 왼쪽 벽면의 생활 풍속 그림 부분도.
다채로운 인물 군상들이 등장하고 있다.
중앙에 보이는 나무는 활엽수와 침엽수,
과실수 형상이 모두 결합했다는 가장 이상
적인 나무. 나무에서 원숭이가 떨어지는
모습이 중간 쪼매 보인다.

사진 왼쪽 위/ 고구려의 역사(力士)
전실에서 현실을 바라 본 왼쪽 모서리 말
각조정식 천장 구조에 그려진 연꽃과 보
살, 연화 화생도, 역사상.

사진 왼쪽 아래/ 계단식 천장 구조의 비천상
장천 1호분의 묘실 곳곳에 그려진 비천상
과 연꽃 무늬는 이 고분의 주인공이 불교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을 것임을
추측케 한다.



집안 시내로부터 압록강을 따라 북동쪽으로 약 25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압록강을
내려다보는 비교적 높은 구릉 지대의 발 한가운데 있
으며 크기는 높이 6미터, 둘레 88.8미터. '장천(長
川) 1호'란 이름이 붙은 것은 무덤이 위치한 마을의
이름을 따기 때문이다.

길림성 박물관에 의해 1970년 8월에 정리가
끝났으므로 국내에는 비교적 늦게 알려진 셈이다. 그
러나 무용총 각저총 등 일제 시대에 이미 공개된 고분
들에 비해 보존 상태가 좋다. 연도, 전실, 현실로 이뤄
진 쌍실묘(雙室墓)인데 전실서 현실에 이르는 공간에
는 바닥만 제외하고는 모두 벽화를 그렸다.

장천 1호분 벽화의 특징은 집안 지역의 고구
려 벽화 중 등장 인물이 가장 많다는 점이다. 화면이
잘 채워지고 내용이 풍부한 생활 풍속도를 위주로 고
구려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전해 준다. 전실의 벽화
에는 1백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 5세기경 고구려의
사회생활, 의식구조, 취미-오락 등을 한눈에 볼 수 있
게 한다. 씨름과 수렵, 매사냥, 악기 연주, 나들이, 원
숭이 서커스 등 온갖 흥미로운 장면들이 등장한다.

특히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
은 전실로부터 현실로 통하는 입구 위의 계단식 천장
에 그려진 주인공 부부의 예불도이다. 연꽃 대좌 위에
부처상이 있고 주인공 부부가 이를 향해 공손하게 절을
하는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은 서기 372년 소수림왕때
불교가 고구려에 전래된 후 민간에서 어떤 양태로 수
용·보급됐느냐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자료로서 주목된
다. 아울러 당시 고구려의 사찰에 봉안됐던 불상이 어
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다.

장천 1호분은 그 밖에도 벽화 곳곳에 연꽃무
늬, 연꽃 속의 인물 화생(化生) 그림, 대좌 위의 보살
상 등이 있어 무덤 주인의 독실한 불심(佛心)을 보여
준다. 생활 풍속도가 주류를 이룬 전실과는 달리 시신
을 모셨던 현실의 네 벽과 천장은 오직 연꽃무늬로만
표현되어 있다. 천장 판석에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북두칠성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北斗七青'이라
희미하게 써어 있다.



사진 위/ 보좌를 쓰고 두광을 한 보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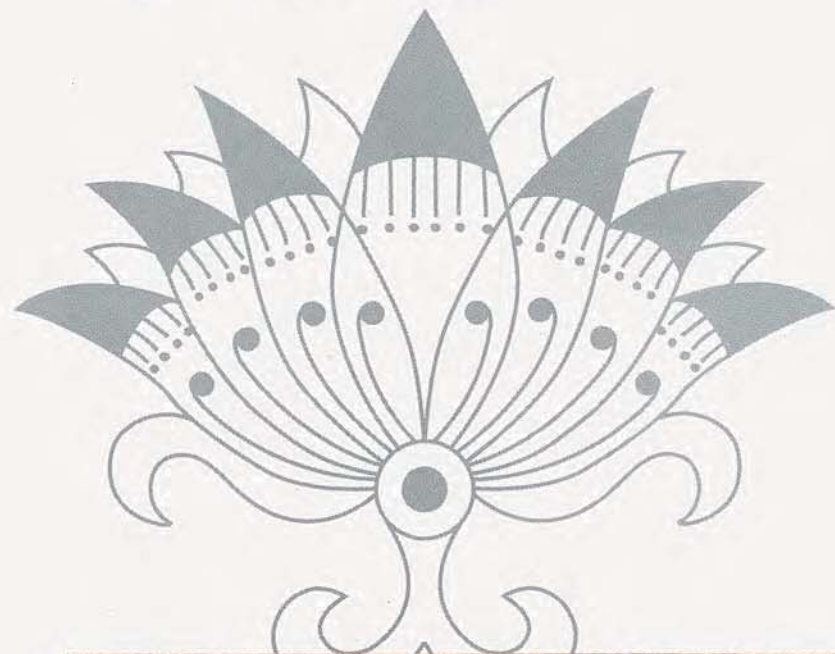
전실에서 현실을 향해 왼쪽 벽면 계단식 천장 받침돌에 그려진 보살상. 연꽃 대좌와 사진 왼쪽에 잘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연화 화생도 등이 불교의 영향을 짙게 풍긴다. 보살은 머리에 보좌를 쓰고 두광을 한 형상이다. 보살에 수염이 있는 모양은 북위(北魏)의 양식에서도 보인다.

사진 아래/ 5세기 고구려 사찰의 부처님 모습

전실로부터 현실로 들어가는 입구 위에 그려진 예불도. 서기 372년 소수림왕 때 고구려에 전래된 불교가 당시의 귀족 계층에서 어떻게 보급, 의식화(儀式化)됐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가운데의 대좌 위에 표현된 인물이 부처인지, 아니면 무덤 주인을 신격화한 형상인지에 대해서는 설이 엇갈린다. 일산(日傘)을 들고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이채롭다.



무용총



집이 시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여산(如山)의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광개토대왕비의 서북쪽 약 1킬로미터 지점이며 골짜기 하나를 두고 태왕릉과 마주하고 있다. 각저총과는 바로 붙어 있어 쌍분(雙墳)과 같은 인상을 준다. 집안의 도심에서 그리 멀지는 않으나 무덤 주변은 옥수수밭, 사과밭으로 둘러싸여 있다.

무용총(舞踊塚)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묘실의 동쪽 벽에 14명이나 되는 남녀가 대열을 지어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장면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서(史書)들이 흔히 우리 민족을 가리켜 "가무음곡을 즐겼다"고 서술한 데서도 알 수 있듯, 고구려인들의 흥겨운 어갯짓과 율동이 화면에서 생생하게 느껴진다. 무용총은 이밖에 수렵, 가옥 구조, 주인 접객(接客), 소가 끄는 수레(牛車) 등 5세기경 고구려인들의 각종 생활과 풍속을 알 수 있는 그림들이 풍부한,

민속 연구의 보고(寶庫)이다.

무덤은 방대형(方臺形)이며 밑부분의 한변 길이가 15미터, 높이 3.4미터이다. 직사각형의 전실과 정사각형의 현실로 구성된 2실묘. 현실은 천장을 계단식으로 괴면서 8각형으로 좁혀 올린 8각 껌 천장이다. 벽화는 두껍게 회칠한 전실, 현실의 네 벽과 현실의 천장에 각각 그려져 있다.

무용도와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은 현실 서쪽 벽에 그려진 수렵도. 넓은 평원에서 네명의 기마무사가 호랑이 사슴 토끼 등을 사냥하는 장면은 힘찬 필치로 고구려 무사들의 높은 기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계단식 8각천장 받침돌에 그려진 벽화에는 각종 동·식물과 인물 형상이 가득 그려져 있다. 특히 무용총 천장에 나오는 수탉 그림은 탁월한 묘사력과 넘치는 기운으로 우리 나라 고대에 그려진 닭 그림 중 가장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 왼쪽/ 삼라만상이 담겨진 천장 그림
현실 천장을 향해 탑 모양으로 차츰 좁혀 올라간 계단식 벽면에 온 세상을 담은 듯, 각종 동·식물과 인물 형상이 그려져 있다. 중앙에 섬세하면서도 힘찬 필치로 탁월하게 형상화된 수탉 두마리가 그려져 있다. 연꽃과 보주(寶珠), 불꽃 등 각종 문양도 장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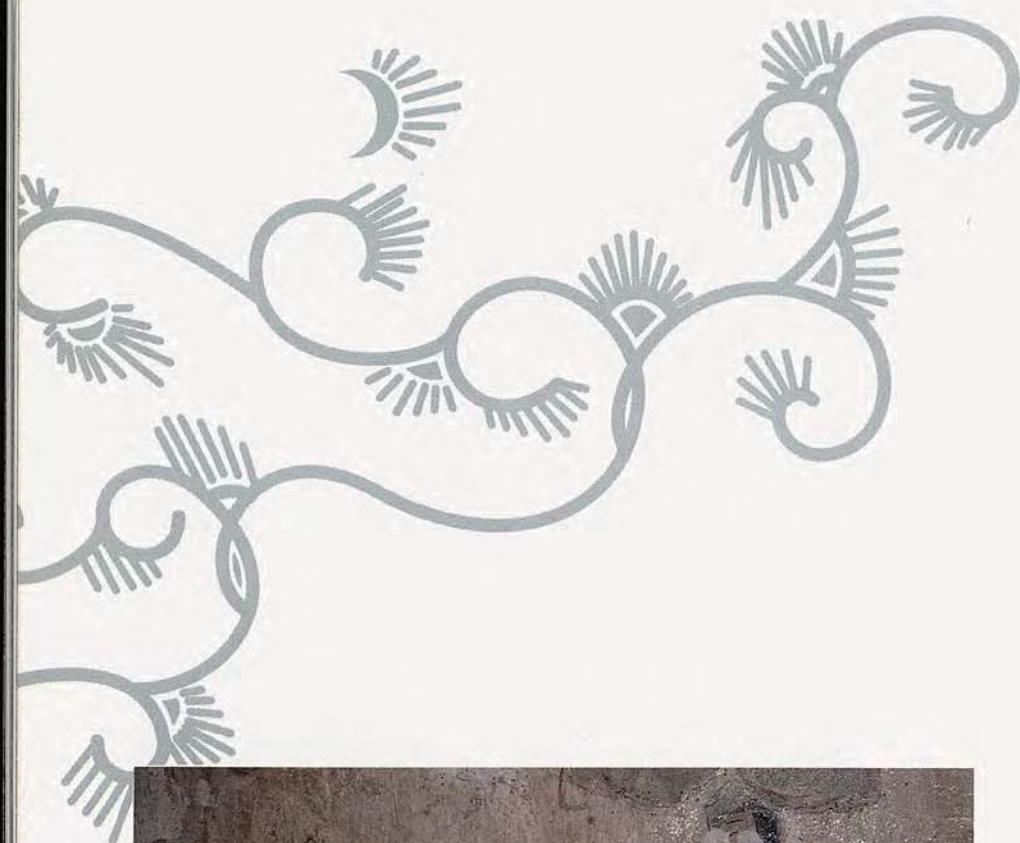
사진 오른쪽 위/ 대륙의 기상을 전하는 수렵도

현실 서쪽 벽면에 있는 것으로, 평양 약수리 고분의 수렵도와 함께 고구려인의 활달한 기상을 전하는 대표적 그림 중 하나다. 수렵도의 아래 부분인 이 그림은 호랑이를 쫓는 무사의 모습을 담았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맹수, 쓴살같이 달리는 말 위에서 이를 포획하려는 무사의 기백과 긴장된 움직임이 화면에 가득하다.

사진 오른쪽 아래/ 소가 끄는 수레
수렵도가 있는 현실 서쪽 벽의 오른쪽 부분. 소가 끄는 수레는 보통 여자가 탔고 말이 끄는 수레는 남자가 탔다는 설이 있다. 마부는 채찍을 들고 있다.



각저총



각저총 (角抵塚)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이 무덤 현
실의 동쪽 벽에 고구려의 전형적인 씨름 (角
抵)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여산(如山)의 남쪽
기슭에 무용총과 이웃해 있으며 축조 방식이나 시기,
벽화의 내용 등도 무용총과 비슷하다.

무덤 모양은 방대형(方臺形)이며 밑둘레의 한
변 길이는 15미터, 직사각형의 전실과 정사각형의 현
실로 이뤄진 2실분이다. 현실은 네 벽 바로 위에 2단
의 평행 껌돌을 얹어 맞조이고, 다시 네 모서리에 4단
의 삼각형 껌돌을 놓아 8각 껌 천장을 구축했다. 무용
총처럼 죽은 이의 생전 생활을 주제로 했고, 무늬나
수법 필치 등이 흡사하나 벽화 내용은 적고 간결하다.

유명한 벽화로는 씨름 그림 외에 북쪽 벽에 그
려진 주인공의 실내 생활도가 있다. 오늘날의 커튼처
럼 화려한 장막이 쳐진 실내에서 귀부인 두명이 음식
이 놓인 탁자를 각각 앞에 놓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고구려 귀족들의 풍요로운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무
용총과 각저총 같은 5세기 벽화 고분들은 무덤을 피
장자가 생전에 살던 주택 분위기와 같게 하기 위해 묘
실의 네 귀퉁이에 붉은 색으로 기둥을 그려 넣는 치밀
함까지 보이고 있다.

천장에 각종 문양과 동·식물, 인물 형상을 그
려 넣은 것도 장관이다.

사진 오른쪽/ 현실 동쪽 벽의 유명한
씨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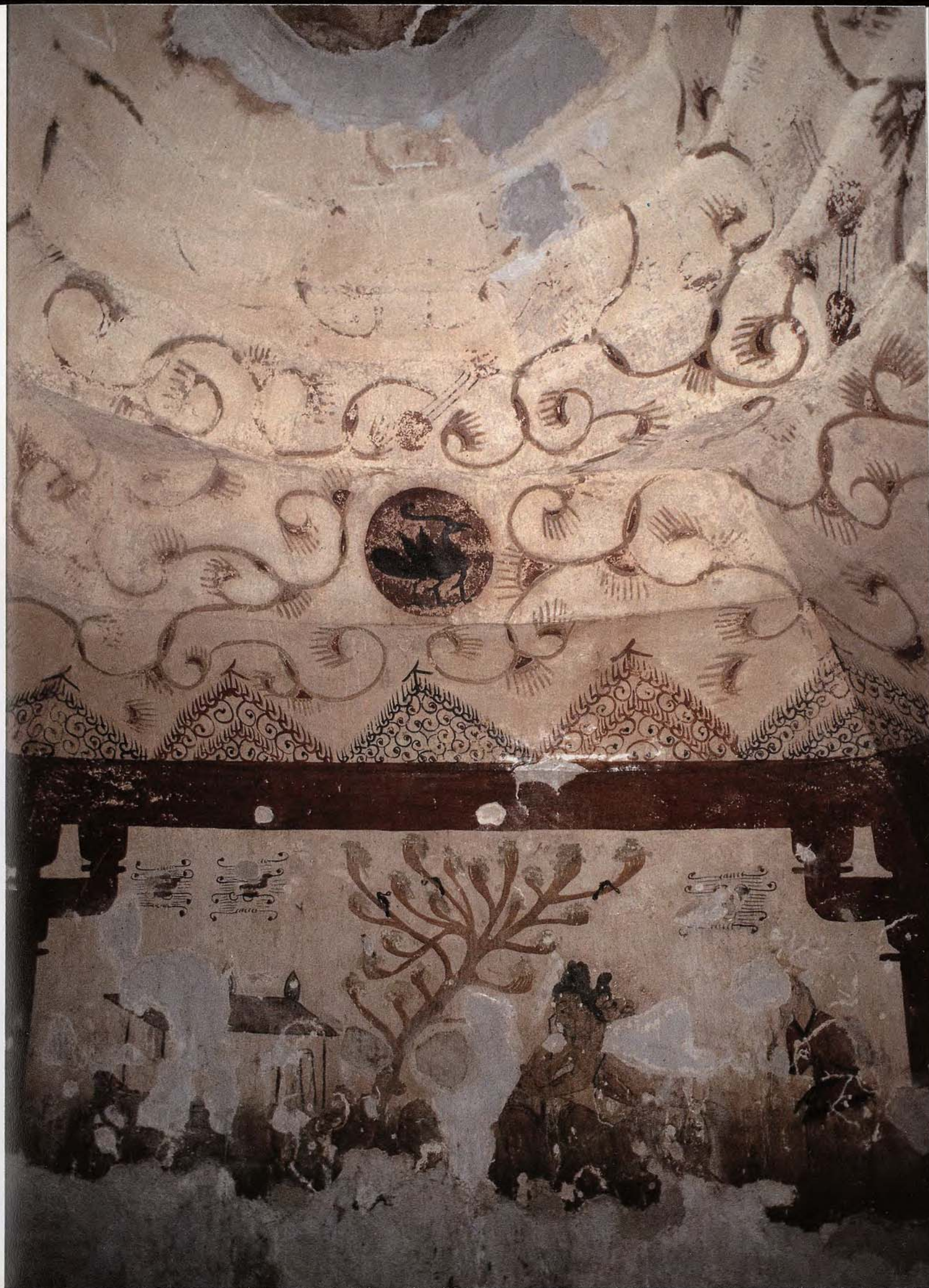
벽면으로부터 천장에 이르는 무덤 구조가
잘 나타나 있다. 벽면의 벽화는 커다란 나
무를 중심으로 역사들의 씨름 장면과 사방
이 트인 정자 모양의 집으로 양분돼 있다.

사진 왼쪽 위/ 귀족들의 실내 생활

현실 북쪽 벽화의 부분도. 왼쪽 여인이 본부
인, 오른쪽이 침으로 알려져 있으나 침의
몸집이 더 크고 의상도 화려한 점이 눈에 띈
다. 여인들의 앞에 음식그릇이나 찻잔을 담
은 것 같은 탁자가 놓여있다. 겸상이 아니고
각각 독상을 받고 있는 게 이색적이다.

사진 왼쪽 아래/ 고구려의 개

전실과 현실 사이 통로 벽면의 개 그림. 무
덤의 잡귀를 물리치는 역사(力士)의 역할
을 각저총에선 개가 맡고 있다. 목걸이를
한 것으로 보아 집에서 기르는 개일 것으
로 보인다.



삼실총



묘과 각저총, 오회분 4-5호묘와 사신총 등은 각각 한군데 밀집해 있는데 비해 같은 여산(如山) 기슭이라 하더라도 삼실총만 따로 떨어져 있다. 삼실총의 가장 큰 특징은 무덤의 내부 구조에 있다. 원형으로 된 봉분 안에 세개의 묘실이 있는 것이다. 삼실총(三室塚)이란 명칭은 그래서 나왔다. 무덤 밑부분의 지름 20미터, 높이 4.4미터.

회철을 한 위에 그린 벽화는 무용총 각저총보다 선명치 못하고 갈색 황갈색 붉은 색이 기조를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림의 내용은 행렬도, 기마무사 전투도, 매사냥 그림, 갑옷 입은 무사 그림, 고구려 성곽도, 각종 이상한 짐승(怪獸) 그림 등으로, 집안의 어느 고분보다 다양하고 아기자기하다.

삼실총에서 우선 주목되는 벽화는 제1실 남쪽 벽의 행렬도이다. 무덤 주인공 부부와 시녀 등을 포함해

11명의 고구려 인들이 어디론가 나들이를 떠나는 듯한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일행 모두가 신분과 성(性)에 따라 서로 다른 복장을 하고 있어 고구려 복식사 연구에 가장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삼실총에서 또하나 유명한 그림 중 하나가 1실 북쪽 벽면에 그려진 기마무사 전투도이다. 자신은 물론 말에게까지 갑옷으로 무장을 시킨 두명의 무사가 서로 창을 겨누며 쫓고 쫓기는 장면은 을지문덕이나 양만춘 장군의 풍모를 연상시킨다. 이들이 전투하는 앞쪽으로 지그재그형으로 축조된 고구려의 성곽이 그려져 있다. 한편 제2실의 서쪽 벽에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으며, 허리에 환두대도까지 찬 무사상이 그려져 있어 삼실총이 서기 5세기경 매우 지체 높은 무인(武人) 귀족의 묘일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진 왼쪽/ 고구려 복식 연구의 보고(寶庫) 삼실총 행렬도

제1실 남쪽 벽의 11명 행렬도 중 뒷부분. 고구려 고분 벽화를 통틀어 북한 수산리의 집기도에 등장하는 인물 군상 다음으로 많은 남녀 인물이 그려졌다. 행렬길에는 꼭 일산(日傘)을 든 시녀가 따르는 것이 재미있다. 11명이 모두 제각각의 복장을 하고 있어 고구려 복식사 연구의 보고이다.

사진 오른쪽 위/ 수탉을 담은 주작도

5세기 무덤인 삼실총의 주작은 7세기 사신총이나 오회분의 주작에 비해 붉은 선묘가 두드러지며, 훨씬 고졸한 맛을 풍긴다.

사진 오른쪽 아래/ 삼실총의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역사(力士)

얼굴 표정이 불교적 냄새를 질게 풍긴다. 우람한 어깨에 비해 허리가 지나칠 정도로 가늘고 두 발목 근처를 뱀이 칭칭 감고 있다. 삼실총에는 각종 형상의 역사상이 유난히 많은데 이는 무덤 주인이 높은 신분의 무사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신총



오회분 4-5호묘와 붙어 있으며 벽화의 내용도 이와 비슷하다. 오회분이 알려지기 전까지 집안 지역에선 유일하게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 사신(四神)을 네 벽면에 그리고 있어 사신총이라고 불렸다. 방대형(方臺形) 분구이며 밑변의 한변 길이 27미터, 높이 8미터.

벽화의 내용은 역시 사신도가 주류를 이루면서 구름(飛雲) 인동당초문 등의 장식무늬, 이상한 짐승(怪獸) 등이 나타나고 있다. 기법은 웅건하고 활달하다.

묘실 북쪽의 현무도는 고구려 벽화 고분에 나타나는 현무도를 통틀어 가장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북과 뱀의 모습을 섬세한 선으로 실감 있게 그렸다. 붉은색 녹색 청색 황색 등을 섞고, 다시 간색으로 연주홍 연자주를 섞어 채색함으로써 고구려 화공들의 세련된 색채 감각을 보여준다.

천장 받침돌이 맞닿는 부분은 도깨비 얼굴 그림을 그린 판석으로 연결했는데 이는 후대 한국 기와에 나타나는 이른바 귀면문(鬼面文)의 선행 형태이다.



사진 오른쪽/ 벽화에 등장한 도깨비 얼굴 삼각형의 천장 받침대가 만나는 부분의 판석에 그려진 도깨비 얼굴. 이같은 도깨비 얼굴은 후대 한국 기와 문양의 중요한 주제가 됐다.

사진 왼쪽 위/ 사신총의 벽과 천장 삼각형 천장 받침대가 만나는 부분을 귀면 판석과 반대쪽은 해와 달의 판석으로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벽면과 천장 받침돌의 만남 부분을 인동당초문으로 표현했다. 이 인동당초문이 후에 오회분에서는 용 문양으로 바뀐다.



사진 왼쪽 아래/ 서역과의 교류상을 보여주는 각종 인동당초문

사신총 벽화의 가장 중요한 문양은 인동당초문이다. 붉은색과 흰색, 노란색 등을 위주로 산뜻한 색감과 현대적 감각에 뒤지지 않는 문양을 만들어냈다. 인동당초문은 중동 지방이 발상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신총 벽화의 인동당초문은 고구려와 서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뒷받침하는 증거인 셈이다.





丹齋 申采浩 (1880~1936)

1920년대 상해 망명시절의 단재

충남 대덕에서 태어나 여순감옥에서 눈을 감기까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 사학자, 언론인으로
활동했음. 중국으로 망명하여 광복회, 동창학교 등을
설립하여 국권회복운동에 힘썼으며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등을 통해 근대 민족주의 사학을
체계화했음.
민족의 완전독립노선을 추구한 그는 한국
사회사상사에서 가장 굳고 주체성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음.

무릇 대한인들이 이십세기 신국민이 될지어다

“말하노니, 20세기 이땅에 살면서 아직도
구시대의 정신과 물질에 집착하는 민족은
실력이 강대하고 사회문명이 발달한
서방 열강들에 반드시 쇠망할지니,
대한인들이, 20세기 강대국과 겨루어
정신과 능력이 한점 뒤지지 않는
신국민(新國民)이 될지어다.
무릇 20세기의 국가경쟁은 그 원동력이
한 두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에
달려있으니 국민모두가 20세기 새국민의
이상을 발휘하여 국가의 기초를 굳게 다지고
실력을 쌓아 세계로 문명을 넓히면
가히 동아시아 한쪽에 우뚝서 세계무대에서
강국의 깃발을 휘날릴지니 -
아, 동포여 어찌 분발하지 않겠는가.”

힘들었던 시절, 불꽃같은 정열로
나라사랑의 외길을 곳곳이 걸어왔던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그는 이렇듯 냉엄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이에 대처해야 할
20세기 한국인의 새로운 자세와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 신국민으로서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다시한번 다짐하며
단재의 말씀을 함께 되새겨 봅시다.

선경은 서로 돕고 함께 나누는 활기찬 사회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남기신 선인들의 소중한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